

하와이 이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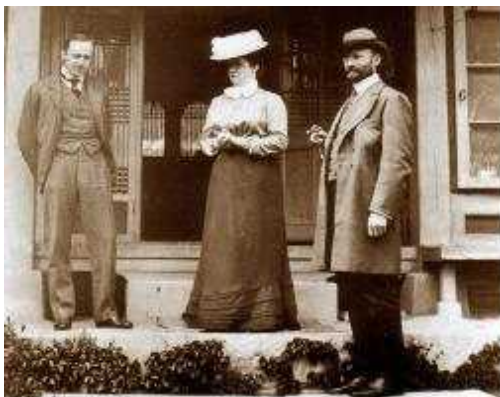
1. 최초의 공식 이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최초 이민은 1883년 구한 말 외교사절 8명이 하와이로 간 것이다. 이후 1899~1902년까지 약 168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학생의 신분으로, 인삼장사로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근대적이고 공식적인 이민의 역사는 1902년 12월 22일 121명이 하와이로 이주한 것에서 시작된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내적으로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게 된 것과, 외적으로는 1876년 일본과 맺은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후 일본 상인들이 한국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한국의 수공업 기반이 허물어져 농민들과 상인들이 파산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경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조선왕조 말 정부관료들의 부패와 무능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가. 하와이 이민의 배경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주들은 값싸고 일 잘하는 아시아계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50,000여명 가까이 되는 중국인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자 일본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서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들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의 문제로 자주 파업을 일으키고 임금이 후한 미 본토로 이주하게 되면서 사탕수수농장은 급격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고종황제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선교사이자 주한 미국공사인 알렌(Dr. Horace Allen)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알렌은 이 한인 노동자 이민 모집책으로 데של러(David W. Dashler)를 선정하였다. 데של러는 이민 모집을 위해 동서개발회사를 세우고 전국적인 이민모집 광고를 내기 시작하였다.

알렌부부 (이민사박물관 제공)

(Published by Authority of the Immigration Commissioner of the Territory of Hawaii, U. S. A.)

NOTICE

HONOLULU, August 6th, 1903.

The Hawaiian Islands offer favorable inducements to all those who may desire to come here and locate with their families.

With a mild and equable climate, a continuous summer, no severe cold weather, the conditions are favorable to the health of all classes.

The public school system is extensive and well established throughout the entire group, and schooling in the English language is free.

Employment is available at all times of the year for agricultural laborers. All able bodied laborers in good health and of good character will have no difficulty in obtaining regular and constant employment, and will receive the full protection of the laws.

The rate of wages prevailing is \$15.00 U. S. Gold per month of twenty-six days each of ten hours labor.

Employers furnish lodgings, fuel, water and medical attendance without charge to the laborer.

Publication of this notice is hereby authorized to be made in the Empire of Korea.

THEO. F. LANSING,
Commissioner of Immigration
and Advertising Agent for the
Territory of Hawaii, U. S. A.

고 시

대 미국 하와이 정부의 명령을 받다 여좌히 공포함

하와이 군도로 누구든지 일신이나 혹은 권속을 다리고 와서 쥬정하고 자 하야 간절히 원하는 자외게 편리케 쥬정함을 몽글한 노라

괴후는 온화하야 리심한 데 위와 치용이 업삼으로 각인의 괴질에 합당함

학교 설립법이 광대하야 모든 성에 다 학교가 잇서 영분을 잘 아치며 학비를 받지 아아함

공부들을 위 하야는 민년 어나 결괴든지 직업 잇기가 용이한 데 신혜 가 장간 학교 품형이 단정 호수 동은 여 일 할 고 장구 할 직업 을 엇기 더

옥 무란 학교 비들의 제반 보호를 받게 함

월급은 미국 금전으로 미삭 심오원 (일본 금 화 화 상 심 원 (티 한 돈 으로 오 심 칠 원 가 량) 식 비 요 일 한 노 서 간 는 미 일 심 서 동 안 이 요 일 요 일 에 노 휴 식 함

공부의 유속 함 노 집과 나무와 식수 와 병을 필요 함 노 경비 노 고용 함 노 쥬 인 이 지 급 함 고 공 부 의 게 노 받 지 아 니 함 호 노 놀 누

대한 제국 에 이 고 시 동 몽 노 함 노 권 을 유 노 스 호 노 놀 누

일 천 구 백 삼 년 八月 六日

대 미국 영 지 하와이 리 민 관 록 록 광 고 티 리 사 무 관 랜 스 고 비

동서개발회사가 신문에 낸 광고 (이민사 박물관 제공)

나. 하와이 이민 진행 과정

광고 내용을 보면 하와이 이민은 풍족한 생활로 묘사되어 있고 생활여건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초기 이민 모집은 쉽지 않았다. 이는 조선인들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조상의 묘와 가족을 두고 멀리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모집이 어려워지자, 알렌은 인천의 용동감리교회(현재는 내리교회) 목사로 있던 자신의 친구 존스(George Herber Jones) 목사에게 이 문제를 소개하고 부탁하였다. 존스 목사는 이 문제를 선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인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교인 50명이 이민을 신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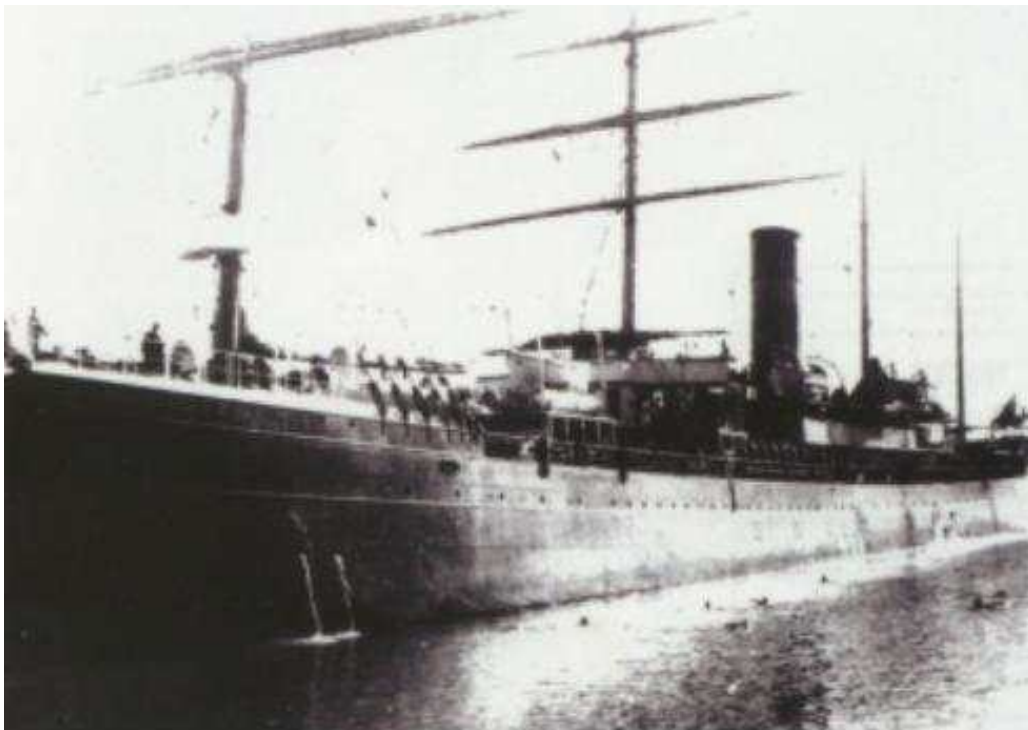
제1차 이민자 모집에는 121명이(이중에는 통역관인 정인수와 안정수가 포함됨) 신청을 하여 최초의 공식 이민선이 1902년 12월 22일 인천의 제물포항을 출발하였다. 제물포항을 출발한 켄카이마루호는 12월 24일 일본의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이민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20명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돌아가게 되어 신체검사에 합격한 101명만이(순수 노동자로 이민 신청한 남자 54명, 통

역관 남자2명, 여자 21명, 어린아이들 24명) 미국의 상선 겐릭호(S.S.Gaelic)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발하였다.



용동감리교회(현 내리교회) 교인들

겐릭호는 1903년 1월 3일 나가사키 항을 출발하여 1월 13일 호놀룰루항에 도착하였다. 이민자들은 도착하여 검역을 받았는데, 신체검사에서 15명이 트라코마 눈병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상륙이 거부되고(남자노동자 8명, 그들의 아내 4명, 아이들 3명), 86명의 이민자들만 하와이 땅에 상륙할 수 있었다.



미국의 이민선 겐릭호

최초의 공식 하와이 이민 후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하와이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65편의 이민선으로 7,375명이 공식이민을 해왔다. 이때 이민을 떠난 사람들은 2,30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조선을 떠나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갤릭호를 타고 이민을 간 김이제 목사 가족

2. 이민자들의 삶

가. 힘든 노동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알루아 농장을 비롯하여 4개의 섬에 있는 32개 농장에 배치되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들은 오전 6시부터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 이들이 받는 월급은 고작 16달러였다. 어느 농장에서는 감독관이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채찍을 때리기도 하였다.



사탕수수밭에서 노동모습 (이민사 박물관 제공)

한인 노동자들은 이런 힘든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이들이 계약 노동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농장주들이 하와이 이민을 돕기 위해 선비와 여비 그리고 입국하기 위한 지참금 50불을 선지급하고 2년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2년 계약이 끝난 뒤 1905년부터 한인 노동자들의 몇몇은 높은 임금을 주는 캘리포니아 철도회사나 과수원으로 이주해 갔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본토로의 이주는 1910년까지 2,011명이나 되었다.

나. 기독교 신앙으로 이겨 낸 삶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은 인천의 용동감리교회 교인이 50명이나 되었고, 궤척호를 타고 가는 중에 전도를 받아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불신자 한인 노동자들은 기독교신앙으로 많은 변화를 받게 되었고,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

1905년 8월부터 22일간 하와이 농장을 방문했던 노블(William A. Noble) 선교사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 노동자들이 이전에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우상숭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06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농장을 방문한 존스 목사도 그들이 근면하고 정직하며, 기독교 신앙으로 화합과 화목을 배우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하와이에 세워진 최초의 예와 한인감리교회

고종의 지시로 1905년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하와이 한인들을 시찰하게 된 윤치호는 그의 보고서에서 ‘교인들이 한인들을 전도하여 몽매한자들이 적고, 그들의 태도가 다른 종족에 비해 단정하고 월등하다’고 적었다.

농장주들은 신앙으로 하나되어 연합되고 근면한 모습을 보이는 한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거나 방을 마련해주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단정하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다.

미주 본토의 감리교 이사회 스톤(J. Sumner Stone)은 1906년 11월 하와이를 방문하여 하와이 영토 지사 조지 카터(George Cater)에게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울 부지를 산 것이다.... 한인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으며, 순수하고 깨끗하고, 마음 씀이 넉넉하다... 한인들이 근면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다... 교회 옆에는 반드시 학교를 세웠다.”

그 결과 약 6000여명의 한인 중 2000여명이 교인이었고, 4,000명의 한인들도 어느 누구도 절간을 세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

3. 사진신부

하와이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남녀 성비가 10:1로 남자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7,375명의 이민자 중 독신 이민자가 5,894명이나 되었다. 하와이에서 10년을 지내면서 독신 남성들은 하와이 농장과 한인사회에 문제거리가 되었다. 가정이 없는 독신 남성들은 돈을 벌어서 저축하지 않고 도박이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진신부들 (이민사 박물관 제공)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와이 농장주들은 독신 이민자들이 결혼을 하여 안정을 찾기를 바랬지만, 미국에서는 동양인 여성이 없는데다, 인종차별로 인하여 국제결혼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진신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진신부는 미국에 있던 남자가 본국에 있는 처녀에게 사진을 보내 선을 보인 후 그 사진을 보고 시집가기를 허락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혼인하던 풍속을 표현하는 말이다.



마을에서 함께 떠난 사진신부 (이민사박물관제공)

유교제도의 틀 안에서 여성으로서 억눌린 삶에 변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사진신부로 신청을 했다. 그들은 하와이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조선에 있는 가난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말에 큰 희망을 가졌다. 또 한가지 가뭄과 기근으로 흉흉한 국내상황과, 머지않아 일본이 조선을 삼켜 종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그들로 하와이 이민을 결심하게 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사진신부로 미국에 들어오는 동양 여성들의 입국을 허락하고 영주권을 주었다. 이에 1910년부터 1924년, 미국에서 동양인배척법으로 이민이 금지되기까지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는데, 대략 600여명 정도가 사진신부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진신부들은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이었고, 1916년을 전후하여 많이 입국하였다.

대부분의 사진신부들은 남편보다 훨씬 어렸다. 열 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리고 그로인한 문제점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와이에 있던 독신 남성들은 자신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했을때의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 도착했을때는 실제로 10년 이상이 지난 나이든 남자들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신부에 의하여 맺어진 한인 가정의 이혼률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신부의 도착은 한인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다수를 차지하던 이민남성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로인한 이민 2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교육수준도 높았고, 자녀교육에도 열심을 내었고, 더 높은 소득을 위해 도시로 진출하게 만들었다. 이후에는 독립을 위한 부인회까지 만들어 독립자금을 모으기까지 하는 등 한인사회에서 이 사진신부들의 등장은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4. 독립운동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은 10명이상이 모이면 농장별로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동회나 자치회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모임의 수장은 교회 목사와 같은 교직자들이 겸하였고, 내부적으로 친목을 강화하고 부녀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할것과, 도박, 음주의 금지하는 내용들을 실천하였다.

이들 모임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각 농장별로 세워진 교회에서 친목 모임,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일제에 의해 나라가 강탈당한 후에는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사람들 (이민사 박물관 제공)

인천의 용동감리교회에서 선교목적으로 파송했던 홍승하 전도사는 구국운동과 한인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민회의 수장이 되어 한인들을 이끌었다. 그가 속한 하와이 한인 최초의 교회였던 한인감리교회는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서 교포들에게 모든 생활의 구심점이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기존의 동회나 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른 항일운동을 위한 단체가 많이 결성되었는데 1907년 9월까지 총 26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농장별로 설립된 자치회는 한인사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도 되었다. 따라서 여러 단체가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한인합성협회를 창설했다. 합성협회는 이후 1909년 미국 본토에 있는 공립협회와 통합되어 국민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승만과 박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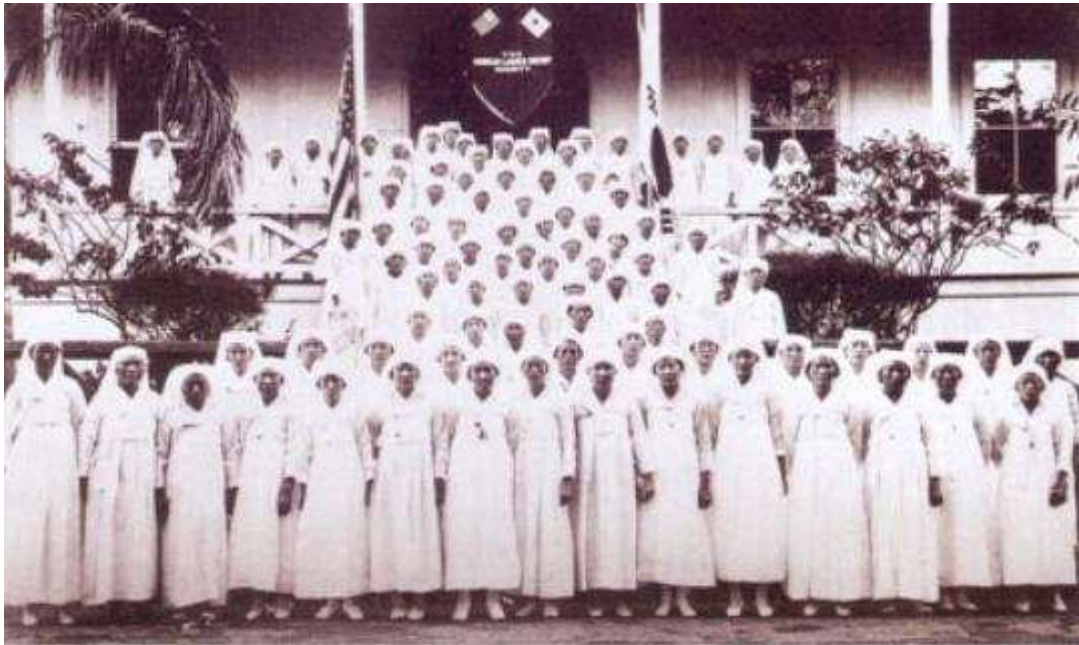


독립의연금 영수증 (이민사 박물관 제공)

국민회(國民會)는 한인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1933년 1월 하와이와 북미에 있던 각각의 국민회가 통합되어 대한인국민회로 개칭되었고 하와이에는 하와이 지방총회가 설립되었다. 대한인국민회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임시정부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대한인국민회의 부인회도 교육에 힘쓰고 나라를 위하여 독립자금을 모으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활동가들 가운데는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서재필과 같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중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박용만은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여 군사적 접근을 주장했으며, 이승만과 서재필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방도로 외교와 홍보를 강조했고 안창호는 교육의 힘에 주목했다.



대한인국민회의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 (이민사박물관 제공)

이처럼 하와이의 교민들은 사탕수수 농장시절부터 서로 돕기 위해 자치회를 만들었고, 일제에 국권을 찬탈당한 이후에는 정치조직을 만들어 국권회복운동을 펼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후에는 돈을 모아 돕는 애국활동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리고 광복을 맞을 때까지 조국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애국심으로 조국을 돕기 위해 헌신하였다.